

연중 제3주일
(구라주일)

숨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무가 4,18)

기도서 335 편 (C해)

제1독서 : 느헤 8,2-4a,5-6,8-10

제2독서 : 1고린 12,12-30

복음 : 루가 1,1-4; 4,14-21

□ 강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윤희 수녀

같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품위를 갖춘 나환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환자란 운명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 많은 질병 가운데 특히 나병만은 편견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잃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도로 찾아주고 의롭고 딱한 처지에 있는 나환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한국주교단이 구라주일을 제정한지 열아홉번째의 날을 오늘 맞았습니다.

의롭고 슬픈 나환자의 벗이 되어 그들의 구겨진 삶에 의욕과 자신을 갖도록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와 회생을 요구하는 날인 것입니다.

전세계의 나환자 추산 인원이 약 1천2백만명이고 한국은 5만여명이며 전북지방에는 3천8백명이나 됩니다. 대개의 나병치유자는 정착마을에서 살고 있으나 아직 치료중인자(現症患者)는 일반 사회속에서 “어두운 생존의 뒤안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재가(在家)환자라고 하는데 우리 교구내에도 620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이들은 볼도 매지 않은 찬방에서 뉘룩에 둔 교구마루 밭 대신 끼니를 겨우 연명해 가고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치명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나병의 비극성, 두려움을 주는 이 나병을 추적하는 인간의 위대성, 이 모두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끝없는 수고 끝에 이제는 현대의학이 나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어 불행중 다행한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멕시코의 지진, 아프리카 대륙의 한발, 콜롬비아의 화산폭발 등등 수없이 많은 대참사들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또 한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로운 일입니까? 나병환자를 돕는 구라주일을 맞이하여 질병과 가난으로 허덕이는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안겨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치료와 재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으로 나눔의 대열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리 성모의원 구라사업 담당)

—“친절과 호의가 피어나는 세상을 꿈꾸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친절하지 못했으니,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는 일이 후시나 생기거든 조심해서 자기를 돌이켜 생각할 것이다.”—
(빅토르 브렉트)



세살박이가 시집갈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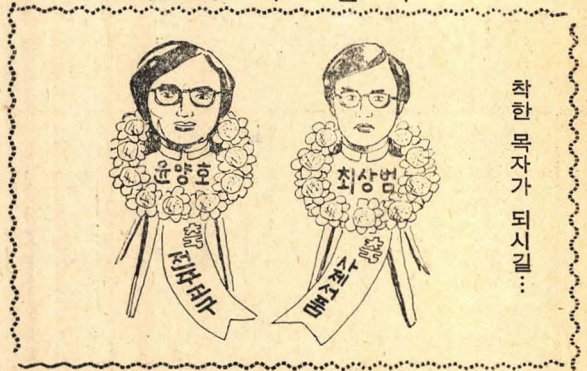
참으로 멋있는 한마디였다. “빛은 꼭 갇아야 해. 우리 손녀 시집갈 때까지. 얼마 안남았어. 지금 세 살이니까. 네 살, 다섯 살...” 일룡이 어머니 특유의 말씨와 몸짓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썩한 눈물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이상은 텔레비전 드라마 「전원일기」의 한 대목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게 전개된다. 양지들에게 사는 홍수네는 빚독촉과 바닥이 난 생활을 감당할 길이 없어 살림 세간들을 처분한다. 동네 아낙네들이 법석을 떨며 세간들을 나누어 간다. 그러나 맘씨좋은 그들의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다. 물론 홍수네의 심정이야 말로 흉어속이고. 이때에 김희장네가 도로 손가락을 물려주고, 일룡이 어머니도 세살박이 손녀 시집갈 때까지 빛을 갇으면 된다고 참으로 유우머러스한 유예선언을 한 것이다. 홍수네가 민망해할까 보아서 손가락을 꼬으며 20년을 대수롭지 않게 헤아리는 것이다.

아무리 드라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어쩌면, 남의 입속에 든 것까지 빼먹으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을 듯도 싶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보들의 우스개에 불과했을 것이고.

금년 들어서 정가의 분위기가 자꾸만 이상해진다. 정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위 정치인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밥그릇만 생각하는 극소수의 소위 야당국회의원들, 도무지 여유가 없어 보여 답답해지기만 한다. 가진자의 여유가 아쉬워진다. 개헌논의만 해도 그렇다. 굳이 89년으로 시한을 두어 정국을 딱딱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유, 양지들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부럽다.

숨정 이 산책



□교구 사목지침 연구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공동체>

가정공동체, 그 회복을 위하여

김 용 태 신부

「성체와」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교구 사목지침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룸을 그 첫째 지침으로 제시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같이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세포요 핵심으로서 인간사회의 모든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보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요 복음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가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 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날로 증가되어가니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즉 아름다운 가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앙으로 새로워진 성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정 환경의 종교적 분위기와 둘째로 부모의 모범적 신앙생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간에 행복감이나 감사의 정을 나누는 분위기, 사랑과 이해속에서 상호 신뢰심을 갖고 사는 가정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열등감과 불안감, 증오심, 편애적인 요소가 가정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다.

둘째로 부모의 모범적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가정의 종교적 분위기는 부부의 모범적 신앙생활로 이루어진다. 부부로서 항상 친절하고 사랑하고 정의롭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마태 18,20)고 하신 말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임(가정기도, 아침, 저녁기도, 식사기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재인식 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밖의 일이 바쁘더라도 아버지와 온가족이 같이 하는 기도의 모임이 한주일에 적어도 일회 이상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가족의 공동기도회를 마련하여 온가족이 함께 모여 일정한 시간에 다 같이 공식기도를 바칠 때,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부모의 음성이나 태도에 나타나는 그 무엇이 가족들에게 축복감, 안정감, 행복감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자녀들간의 대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나눌 때에 큰 행복감을 가지게 됨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취침전의 기도는 고요하고 적막감이 감돌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체험했던 좋고 피로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두려움, 괴로움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특히 하루 동안에 경험한 사랑

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또 때에 따라 가정을 위한(생일, 본명축일 등) 미사 봉헌, 조상을 위한 미사 봉헌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온가족이 함께 위령기도 봉헌과, 가족이 함께 성체조배하는 것은 가족단위의 좋은 신심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전례 주기에 따라 가족이 함께 가정안에서 전례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즉 대림시기에 대림환과 촛불을 붙여 불빛속에 성탄을 맞이하거나 트리나 구유를 만들고 간단한 장식물을 봉헌하는 일, 사순절에 극기하는 일, 부활시기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음식 나누는 일 등이다.

또한 식사때 가장이 필두로 가족이 식사때마다 번갈아가며 식사기도를 바치는 것도 가정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식탁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과 이 음식을 먹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며 동시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상잔치에 초대되는 것과 같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받게 됨을 인식케 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가정의 평화와 일치성을 위해서는 교리, 성서공부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부모 자신이 무엇보다도 교리·전례에 대한 상식을 넓혀야 하기에 공부하고 유아기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이렇기 위해서는 가족단위 성서공부를 하면서 가족의 분위기를 위해 가족오락, 게임, 성가도 한달에 적어도 일회쯤 갖는 것도 좋겠다.

끝으로 기도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기도가 미사성제임을 알고 온가족이 함께 미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겠다. 온가족이 한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이 혈육의 정을 더 할 수 없이 깊게하여지는 것이라면 주님의 식탁에 온가족이 같이 앉아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더할나위없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며, 이에 가족 모두가 주님안에 하나가 되는 사랑의 일치, 행복,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니 적어도 한달에 한주일을 가정주일로 정하여 가족이 함께 미사해설·독서·신자들의 기도·봉헌예절에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때 가정성화의 대원칙은 온가족이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성당에서는 같이 미사 참례하고 같이 영성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몇가지 제안을 실천하는 중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노송 주임, M·E 지도신부)

□이전 개업

대 건 회 관

연회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⑦566 · ③3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

웨딩드레스 · 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 수 웨딩드레스

미 용 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번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주리아)

□마춤 · 대여□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폐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관동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 인 기(논지노)
최 영 자(헬레나)

성 훈 치 과

관동도로 사거리
(전일관광 2층)
☎ 75-1113
최 성 훈(빈첸시오)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28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사목국
 2. 군옥지구 M. E 11차 환영미사 : 27일 오후 6시, 장소-팔마 교육관
 3. 이누갈다 순교미사 : 31일 오후 3시, 장소-해성학교
누갈다회원 많은 참석 바람
 4. 성미 후원회 제9차 월례미사 : 2월 3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전북은행 남문지점 4층), 미사집전-지정환 신부님
 5.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월례회 : 2월 3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특강-박정일 주교님(수도자들의 역할)
 6. 86 교리교사 동계연수회 : 2월 3일(월)~2월 5일(수) 2박 3일, 장소-가톨릭센터
내용-교리교사 자질 함양 및 신앙심 고취 ※ 특히 신입교사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움 월례회 일자 변경 : 86년 2월 2일(일요일) 오후 2시
 8. 남성 24차 푸르실료 : 마나니마 27일 4시30분, 폐회식-5시
 9.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 2월 1일(토)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10. 신양대학 졸업식 변경 : 2월 12일 오후 7시, 장소-교육관, 많은 축하 바람
- 고 서정수(알렉시오)신부 1주기 미사 : 27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 가정기도 시편 : 30 : 1~12 독서 : 로마 2 : 1~7 복음 : 루가 8 : 4~15

*** 사제 인사 이동 ***

교구에서는 이리 복일동 본당을 신설하고 아래와 같이 사제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괄호안은 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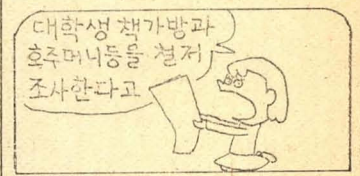
- | | |
|-------------------------------------|--|
| 김반석 신부-은퇴(서학동주임) | 한기호 신부-무주주임(삼례주임) |
| 이대권 신부-삼례주임(황등주임) | 김순태 신부-황등주임(성심 종교감) |
| 권영균 신부-부안주임(복자주임) | 강덕행 신부-장수주임(영등동주임) |
| 안복진 신부-영등동주임(합열주임) | 김기수 신부-복자주임(광주 가톨릭대학) |
| 법성규 신부-성심 종교감 겸 상임이사
(해성학원 상임이사) | 이상섭 신부-상관주임(무주주임) |
| 서석기 신부-합열주임(부안주임) | 박성팔 신부-필리핀 Radio Veritas, EAPI
(장수) |
| 김영신 신부-해성종교감 겸 해성학원 이
사(상관주임) | 김희남 신부-이태리 유학(중앙보좌,
유학 대기) |
| 김종길 신부-화산주임(금정이주임) | 김요한 신부-군중 대기(덕진보좌) |
| 서석구 신부-미국 교포사목(교창주임) | 김기곤 신부-노송동보좌(전동보좌) |
| 박종상 신부-이리 복일동주임, 신설
(화산주임) | 양경배 신부-덕진보좌(창인동보좌) |
| 한봉섭 신부-교창주임(미국 교포사목) | 김의철 신부-중앙보좌(노송보좌) |
| 강덕창 신부-서학동주임(해성 종교감) | 윤양호 신부-창인동보좌(새 신부) |
| 나국영 신부-금정이주임
(서울 매스컴위원회) | 최상범 신부-전동보좌(새 신부) |

◎ 단체 지도신부 발령 : J. O. C 지도신부-(명) 김영신신부 (면) 박종근신부

- ※ 인수 인계 일시 1월 28일 : 오전 10시30분-부안, 복자, 황등, 삼례
오후 2시-합열, 영등동, 장수, 무주
1월 29일 : 오전 10시30분-화산, 금정, 서학동
오후 2시-상관, 해성학교, 성심학교

※ 장소 : 교구청 회의실 ※ 부임일자 : 1986년 2월 1일(토)까지

요심이(651) 김병오



전임강사 초빙

1. 과목 : 수학, 도덕
 2. 자격 : ○ 자격증 소지자 여자 각 1명
○ 사학재단 연합회 임용고시 합격자
 3. 구비서류
○ 이력서 1부
○ 호적초본 1부
○ 자격증(원본) 1부
○ 임용고시합격증(원본)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신자는 세례증명서 1부
 4. 제출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
 5. 제출일자 : 2월 1일까지
- 학교법인 해성학원**

三星電子
중부대리점

대표 김중희(빈첸시오)
전주시 서노송동 651~31
(중앙시장 육교빌)
4-4314-74-5161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부리포니아)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668
자택 ☎ 8120

축! 결혼

김한기(알폰소)의 3남
김세길(야코보)
이준수의 차녀
이윤이(헤레나)
주례 : 황인규 신부님
일시 : 86. 1. 26. (12시)
장소 : 김계 요촌천주교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건축추진위원장 : 이흥재
- 1. 신임 사목위원회 명단 : 회장-노인석, 부회장-이수웅·김용환·이당재, 총무-박종구, 선교부장-윤석연 재정부장-이종선, 홍보부장-배기창, 사회복지부장-강병희, 여성부장-김진순, 전례부장-모보일, 교육부장-임철환, 청소년부장-조흥기, 애령부장-박상규, 구역부장-김종표, 감사-박태복·장성복.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2. 본당 울드레아 총회 : 27일 저녁 8시,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 3. 중·고등부 동계피점 : 2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참가비-1인당 1천원, 학생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4. 구정합동 위령미사 :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모든 가정에서는 미사에물 봉헌합니다
- 5. 구역봉사자 모임 : 1월 29일 저녁 8시
- 6. 남성 제23차 꾸르실료 : 24일~27일까지 본당참가자-윤석연, 최만식, 유용근, 선배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와 팔랑카 부탁드립니다
- 7. 부녀회 월례회 : 28일 어머니미사 후
- 8. 금주의 전례담당 : 제3조, 차주는 제4조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01,560원 교무금 : 613,300원 신축금 : 35,000원

- 5. 우정의 날 : 29일 저녁미사후 ※ 예비자를 초청합니다
- 6. 성가연습 : 공식미사전 30분간
- 7. 성체조배 : 미사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성체조배를 합시다
- 8. 가정 기도의날 : 매주 수요일, 꼭 실천합니다
- ※ 구라주일 2차헌금 :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3,240원 교무금 : 2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군
수녀원 2-2276

- 1. 신영세자를 교적정리 확인바랍니다
- 2.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후 강당에서 있으니 많은 교우분들은 예비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모집합니다)
- 3. 중·고생교리 : 토요일 오후 6시
- 4. 2월 2일 주의 봉헌축일에 초축성이 있어야오니 교우분들은 성당에서 제대조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학생회 동계 등반계획 : 1월 26일 오전 8시 집합, 9시 출발
- 6.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 독서	2 독서	기 도
첫 미사	함문권	문치구	박병환	박 장 훈
공식미사	신영창 오정희	김낙군	강기호	좌인의 위탁
저녁미사	강경화	김정민	진경선	유 동 근

- 지난주 봉헌금 : 제-366,310원 주일학교-8,500원 주일금-357,81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김기곤 보좌신부님 노송동성당으로 전근 송별식-오늘 공식미사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후임-최상범(요셉) 신부님, 수고하시겠습니다
- 2. 울드레아 : 공식미사후, 사무실 2층
- 3. 성마리아·푸리아 : 2월 2일 오후 2시
- 4. 유아세례 : 2월 1일 오전 11시
- 5.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 6. 글라라 혈제회 : 다음주 오후 1시30분
- 7. 다음주 봉헌담당 : 임형서 부부
-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최종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래
- 지난주 봉헌금 : 913,410원 교무금 : 530,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예비신자 환영식 : 오늘 11시30분(지하 강당)
- 2. 축! 여성 20차 꾸르실리스타 탄생 유계순, 정정수, 임미승
- 3. 성모기사회 : 2월 1일 오후 1시30분
- 4. 자모회 : 공식미사후, 유아세례 : 오늘 10시
- 5. 교무회 : 자진 신입 못하신 분은 1월말까지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06,810원 교무금 : 605,500원 미수금 : 697,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철
수녀원 "

-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후
- 2. 예비자교리 시작 : 오늘 공식미사후
- 3. 초 축성(주의 봉헌축일) : 2월 2일, 초 준비 바람
- 4. 첫철례7 : 2월 1일 저녁 7시
- 5. 구라주일 특별헌금 : 오늘(26일)
- 6. 축! 결혼 : 26일 12시30분, 복자성당 신랑-함용던(압브르시오), 신부-김옥련(테레사) 30일 11시, 복자성당 신랑-박우영(미카엘)군, 신부-이성희양
- 7. 금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차주 성당청소 :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 8.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김운자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건 ②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 249,055원 교무금 : 694,950원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1. 금주전례 : 해설-문병주, 독서-최영섭·한영섭 봉헌-여정진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옥동, 독서-김봉길학사·강덕용 봉헌-황남용씨 부부
- 2. 축하합니다 : 새 꾸르실리스타 한영례, 정소자 자매님
- 3. 친선 축구시합 : 공식미사후 청년회 대 학생회 친목 축구시합 있습니다
- 4. 회장단 1일 피점 :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